

주공-택지개발 토공-주택사업

건설 공기업 ‘문어발식 확장’

밥그릇 싸움 치열...통합 논의 ‘고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서로의 고유영역을 공공연히 침범하면서 과거 공기업의 문어발식 방만경영 재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공과 토공의 경우 최근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고질적인 ‘밥그릇’ 싸움을 되풀이하면서 두 기관

통폐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건설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의 1·3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놓고 주공과 토공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토공의 주택사업 진출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주공과 함께 토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등을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이달 초 고위직들이 직접 나서 의원과 보좌관들을 만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사명을 받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주공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독점적 공기업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주공은 국회에 제출한 ‘비축용 임대주택 검토 보고’를 통해 “토공에 주택건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2개의 주택정책 수행 공기업을 두는 것”이라며 토공의 임대주택사업 진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 또한 지난 2003년 주공-토공 통합 논의가 백지화된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어 상호 고유영역 침범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003년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주

공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도시정비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토공은 새 행정수도 건설, 경제특구개발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30만평을 기준으로 그 이상 규모는 토공이, 그 이하는 주공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주공은 2005년 11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기존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늘어난 이후 택지개발사업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주공이 건설하는 아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의 총면적은 각각 876만평과 285만평에 달한다.

이처럼 두 공기업간 ‘밥그릇’ 싸움이 잇따르면서 주공-토공 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여야의원 50명은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두 공사를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서 향후 처리과정을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기업 윤리경영·사회공헌 ‘낙제’

기획처, 17곳 조사

고객만족도는 향상

공기업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부정적인 신호도 적지않게 나왔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된 사회적책임 평가의 결과, 윤리경영·사회적 공헌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작성한 ‘2006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보고서’는 일반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8개 공기업과 기관·기업을 핵심 고객으로 삼고 있는 기업 대상 공기업 등 9개 그룹으로 나뉘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대상 공기업 8개사 가운데 ‘사회적책임 평가’의 관련법규 준수도가 기준점수(75점)에 도달한 공사는 75점을 받은 농촌공사 외에는 없다.

토지공사가 61점으로 가장 낮았고 주택공사 67점, 철도공사 69점, 도로공사 70점, 한국공항공사 72점, 한국전력 73점, 인천공항공사 74점 등이었다.

또 사회적공헌 점수가 75점에 도달한

■일반인 대상 공기업 사회적 책임 평가

구분	경제적역할	윤리경영	사회적공헌	삶의질 향상
한국전력공사	83	71	74	85
대한주택공사	69	63	59	69
인천국제공항	82	74	67	83
한국도로공사	79	68	66	79
한국농촌공사	73	76	60	74
한국공항공사	73	72	62	77
한국토지공사	74	58	65	71
한국철도공사	76	64	64	75

일반인대상 공기업은 없다.

주택공사가 59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고 농촌공사 60점, 한국공항공사 62점, 철도공사 64점, 토지공사 65점, 도로공사 66점, 인천공항공사 67점이었다.

기관·기업대상 공기업들은 사회적 공헌도에서 평균 62.9점에 머물렀다. 사회적 공헌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 밀착활동’ 항목을 공사별로 보면, 조폐공사가 58점으로 가장 낮았다.

고객 대상 충성도 조사 결과도 하락세를 보여 향후 수익 확보 전망도 불확실하다.

일반인대상 공기업들의 고객충성도는 한국전력이 63점으로 전년의 73점에 비해 10점이나 급락했다. 도로공사는 71점에서 66점으로, 한국공항공사는 71점에서 68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주택공사 분양주택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비율은 33.0%,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불만·불평제기 비율은 고객가운데 전화·팩시밀리·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공기업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불만은 ▲충간 소음이 심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이동이 불편하다 ▲방음시설이 나쁘다 등의 순이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대한 고객불평률은 제2경인선 17.1%, 동해선 15.8%, 영동선 11.3%, 포항선 10.5%, 중부내륙선 8.3% 등이었다.

휴게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고객불평률은 서해안선 25.0%, 호남선 11.5% 등이었다.



농촌사랑 설맞이 직거래 큰장터

농협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12일 광주시 중흥동 지역본부 정문 앞에 차려진 ‘농촌사랑 설맞이 직거래 큰장터’에서 고객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장터에서는 전남 농특산물, 선물세트 등이 시중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12일 광주시 중흥동 지역본부 정문 앞에 차려진 ‘농촌사랑 설맞이 직거래 큰장터’에서 고객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장터에서는 전남 농특산물, 선물세트 등이 시중가보다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車 A/S센터 수리비

업체별로 ‘천차만별’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영하는 A/S센터의 부품가격, 공임, 도장료 등 수리비가 제작사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기는 하지만 동급차량, 동일부품의 수리비가 2~3배씩 벌어지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결국 ‘가격 부풀리기’가 그 원인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해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상반기(1~6월) 현대, 기아, 쌍용, GM대우, 르노삼성 등 5개 업체가 직영하는 전국 70개 A/S센터의 보험사 수리비 청구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쌍용 차여맨의 후드(보닛) 교환공임은 8만1천300원으로 현대 에쿠스(3만1천700원)나 르노삼성SM7(3만6천원)에 비해 2배 이상, 기아 오퍼러스(2만5천원) 보다는 3.3배 높았다.

후드 부품가격도 차여맨이 36만원으로 SM7(17만원)에 비해 2.1배 비쌌다.

앞도어 공임은 SM7이 12만6천원으로 오퍼러스(5만7천원)에 비해 2.2배, 부품비는 차여맨이 35만원으로 SM7(13만원)보다 2.7배 높았다.

도장료에 있어서는 에쿠스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후드와 앞·뒤 도어, 앞 핸들(범퍼와 바퀴 사이부분)의 도장료는 에쿠스가 119만원으로 차여맨(87만7천원)과 SM7(82만8천원)에 비해 35~40% 높았으며, 오퍼러스(67만3천원) 보다는 2배 가까이 비쌌다. 부품 교환비용도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센터의 부품비 교환율은 앞범퍼가 40.3%, 뒷범퍼가 32.1%, 앞핸다가 31.4%로 일반 정비공장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9.1%포인트, 8.5%포인트 높았다. A/S센터에 입고되는 차량 2~3대 가운데 1대꼴로 범퍼나 앞핸다를 교환한다는 얘기다.

5개 제작사의 평균 수리기간도 4.4일. 후드 부품가격도 차여맨이 36만원으로 SM7(17만원)에 비해 2.1배 비쌌다.

/연합뉴스

대출증가액 70% 수도권 집중

호남지역은 전국 최저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증가액의 70%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호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한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지역별 금융기관 대출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생보·증권금융 제외)을 합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16조 7천126억원으로 전년대비 대비 112조2천99억원, 13.9% 증가했다. 지난해 대출증가액 가운데 70.2%인 78조7천681억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지난해 대출증가액이 4조5천831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9% 증가했고 영남이 12.1%, 충청이 11.9%씩 늘었다.

호남지역은 2004년과 2005년도에 대출증가율이 각각 3.8%, 4.7%로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기준으로 호남지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예금은행 39조1천864억원, 비은행기관 23조6천922억원 등 총 62조8천786억원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은 또 지난해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이 112.9%로 전년대비 6.6% 늘어났지만 증가율면에서 지방 평균인 11.2%에는 못미쳤다.

이처럼 호남지역 대출 및 예대율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구입용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호남지역은 일부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형업체 소규모 공사 제한”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밝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소규모 공사 제한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웅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큰 건설업체들은 형편이 나은 반면에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일감을 확보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소업체의 일감 확보와 관련해서는 “큰 업체들은 작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는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중소 건설업체들만 도맡도록 해 두고 있는 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배당 ‘외국인 돈잔치’

올 2조2천억원...유출 증가세 완화해야

올해 국내 은행의 배당 가운데 외국인 몫으로 돌아가는 규모가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행 지분의 국내와 국경을 통해 은행 수익의 국외 유출 증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외환·하나·우리·전북은행 등 올해 배당액을 확정된 7개 은행의 배당총액은 2조6천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돌아갈 몫은 1조7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아직 배당 규모를 결정하지 않은 신한·기업·한국씨티은행이 작년 수준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규모는 모두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은행별로는 작년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82.7%인 국민은행이 작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1조154억원을 배당하고 10년 만에 첫 배당을 실시하는 외환은행은 대주인 몬스타를 비롯한 외국인 주주들에게 5천11억원을 지급한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 규모는 작년 두 은행이 거둔 수익의 41.1%와 49.8%에 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 ‘황금시간’

금요일 개점 직후

일주일 중 백화점 고객 1명당 구매단가가 가장 높은 시기는 금요일 오전 개점 직후 1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백화점이 작년 한 해 동안 본점의 요일별·시간대별 매출현황을 분석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1명당 구매단가는 금요일 오전 10시30분 개점 직후부터 1시간 동안이 25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요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의 구매단가가 22만원으로 두번째로 높으며 일요일 오후 3시30분-4시30분(21만7천원), 토요일 오후 3시30분-4시30분(21만4천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월요일 오후 7-8시에는 구매단가가 13만3천원으로 일주일 중 가장 낮았다.

하루 중 고객과 매출이 가장 몰리는 ‘러시아워’는 평일의 경우 오후 3시30분-4시30분으로 하루 매출의 14-15%, 고객 수의 13% 가량이 이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구매단가도 20만원에 달했다.

주말에는 오후 4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원시스템㈜	JAVA/JSP/.NET/SE/DBA 경력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14	062-384-1161
동부화재 광주지점	정규직 경력사원 공채 모집요강	대졸/경력3년	5000~6000	02/16	062-220-8366
메인텍㈜	[전문로봇/기계발사]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31-381-7077
㈜미래시스템	경리원/고객관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2/16	010-9885-1111
한국쓰리엠㈜	사무직/공무기술직/생산직 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6	031-359-2100
㈜한국컴엔지니어링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21	062-369-0790
㈜한림덴텍	국내영업직·신입사원모집(전북/전남)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31-478-3416
에스엠텍㈜	지게차기사및 전자제품 아저 인력 채용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2/23	062-950-6548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 공고	대학원/경력3년	회사내규	02/23	061-760-5070
한국휴렛팩커드	[광주] Customer Engineer 3 roles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3	02-2199-4099
미스타(자동차관리)㈜	[신입/경력] 기생점 관리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3	02-2636-3370
㈜금증기업	경리 및 일반사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4	062-515-4100
진원IND(유)	자동차 부품조립 주.야간교대 근무 가능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6	062-952-5074
윤선생영어교실(광주북구점)	[영어교육문화교과]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2/28	062-526-066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